

国立公園과 環境保全

薛 国 煥 (韓國国立公園協會 會長)



우리 祖上들은 自然의 摂理를 神格化시켜 崇拜해 왔다. 그러나 人口가 增加하고 都市化하므로서 土地, 水資源, 에너지 등 其他 自然資源 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自然의 破壞는 加速化되고 있으며 이를 防止하기 위한 方案으로 自然保護運動을 汎國民運動으로 實踐窮行하여 왔던 것이다.

国立公園은 自然保護運動의 核心的인 實踐地로서의 自然保護의 教育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自然公園의 資源保護와 國民의 利用增大를 위한 合理的인 計劃을 推進하여 自然保護라는 넓은 範圍에서의 우리 生活이나 生産活動과 關聯된 効率的 管理로서 自然破損行爲의 源泉인 規制를 強化하고 “環境惡化는 國民의 生命과 直結된다”는 點을 強調하는 政策的인 配慮가 不可避한 것이다.

특히 自然公園의 森林資源은 大氣淨化의 主종이 되며 人間이 呼吸하는 1日의 酸素必要量이 1人當 約 1kg이란 實驗値를 勘案하면 서울市의 人口 700萬名이 呼吸할 수 있는 酸素量을 擔當할 수 있는 常綠闊葉樹面積은 8萬町步 以上이 必要로 하며 이는 現在 서울市의 公園面積 6,960ha의 約 11.5倍에 該當하는 것이다.

多幸히 서울特別市 發表에 의하면 86年의 亞細亞 게임과 올림픽大會를 契機로 大大的인 環境淨化事業을 위한 5千萬구부 植樹運動을 展開한다는 計劃에 對하여 頗 多幸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計劃이 道路公園의 綠化, 街路樹의 奨勵, 漢江流域의 綠化 등 푸른 都市化로 “大都市綠地公園”으로서의 森林造成은 騒音의 減少와 氣溫의 緩和作用도 疊게 되어 快適한 環境造成에 크게 寄與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公園面積은 全國土의 約 3.1%에 不過하나 隣接 日本國은 13.8%로서 그 比率에서 우리의 約 4倍에 該當되며 그만큼 公園綠地面積도 많이 保有하므로 環境保全에도 寄與하는 바 클뿐더러 公園業務도 環境廳長官이 管掌하고 있어 国立公園과 環境保全은 그 關聯性이 直結되는 것으로 본다.

自然公園이란 自然風景地를 保護하고 適正한 利用을 圖謀하여 國民의 保健休養 및 情緒生活의 向上을 寄與한다고 보면 環境이란 自然의 狀態인 自然環境과 사람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財産(自然)의 保護 및 動·植物의 生育에 必要한 生活環境을 말하는 그것으로서 自然保護運動은 바로 環境保全運動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